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김 의 철¹⁾

인하대 경영학부

박 영 신²⁾

인하대 교육학과

박 선 영³⁾

인하대 교육학과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를 규명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총 2,955명이었으며, 청소년 985명(초 269, 중 270, 고 211, 대 235), 부모 1,970명(부 985, 모 985)이었다.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 가정이 화목할 때였다. 이외에도 청소년은 휴식 및 여가시간을 가질 때,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 개인적인 성취를 할 때에 행복하였다.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고 성장할 때, 건강할 때에 행복하였다. 둘째, 청소년과 부모 모두,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 자기조절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을, 부모는 화목한 가정과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셋째, 청소년과 부모 모두,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은 자기조절, 정서적 안녕감, 원만한 인간관계를, 부모는 건강, 자기조절을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했다. 넷째, 전반적으로 가장 불행한 때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 가정이 불화할 때였다. 이외에도 청소년은 인간관계 어려움, 개인적 성취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불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인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화목한 가정이었으며, 자기조절과 원만한 인간관계도 중요하였다. 특히 청소년 경우는 행복을 위해 학업 충실이, 성인은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의미 있는 요인으로 포함되었다.

주요어 : 행복, 불행, 행복의 조건, 토착심리, 화목한 가정, 자기조절, 인간관계, 학업 충실, 건강, 경제적 안정

*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9일에 개최된 한국인간발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이 연구는 2012년도 인하대학교 교수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yspark@inha.ac.kr)

3)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1.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한국인 토착심리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부모자녀관계(박영신, 김의철, 2004), 효도(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 자녀가치(박영신, 김의철, 김미숙, 2012), 성취(박영신, 김의철, 김경자, 2010), 자기개념(김의철, 박영신, 2006a), 스트레스(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신뢰(박영신, 김의철, 2005) 등이 그 예이다. 겉보기에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결과를 통해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이질적인 개념들 저변에 공통성을 지닌 심리적 구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드러난 현상의 기저에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는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한국인의 토착심리라는 틀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심리와 관계 및 행동 특성들에 대한 탐구 결과는, 한국인 토착심리를 구성하는 핵심적 구인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한국인 토착심리 분석의 일환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토착심리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이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해 청소년은 자기조절, 학업성취, 원만한 인간관계를, 성인은 경제적 요인, 자기조절, 화목한 가정을 대표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가정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화목한 가족관계, 경제적 여유를 대표적으로 지적하였다. 청소년

경우에 학교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는 친구관계와 학업성취가, 성인 경우에 직장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원만한 인간관계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청소년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성인은 경제적 여유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김의철과 박영신(2006b)은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여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시도한 바 있다. 즉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자원으로서 경제력, (2)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요성, (3)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서 정서적 지원, (4) 심리적 특성으로서 통제감의 중요성: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5)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기대, (6)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들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으나, 가정 학교 직장과 같은 구체적인 집단 내에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은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이외에도 학업성취, 건강, 여가생활 등이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요소로 포함되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보다 객관적인 상태를 포함한다면, 행복은 더욱 주관적인 안녕감의 경험에 초점을 두는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행복이 추상적인 용어로서 문학작품이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다면, 최근에는 심리학 분야의 경험과학적 연구에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Diener(1984)가 행복

경험에 내포된 주관성을 강조하며 주관적 안녕감을 정의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행복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누적되었다.

행복 관련 연구들 중에서 행복 경험에서의 문화차에 대해 관심을 둔 연구들이 있다.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과 최인철(2010)은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한국인 행복지수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서양에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서를 측정하는 도구들(Watson, Clark, & Tellegen, 1988)이 높은 각성 수준의 정서들만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서은국 등(2010)의 행복 지수 측정문항들은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낮은 각성의 정서들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긍정적 정서도 각성수준을 고려하여 높은 각성의 즐거움, 중간정도 각성의 행복함, 낮은 각성의 편안함과 같은 정서를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인지를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 개인적 만족만이 아니라 관계적 만족, 본인이 소속한 집단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 모두 포함함으로써,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행복 지수 측정문항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신적 웰빙을 측정하여 한국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최근에 있었다.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과 조용래(2010)는 Keyes(2005)의 견해에 토대하여, 정신적 웰빙을 정서적 웰빙에 국한시키지 않고, 개인의 기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심리적 웰빙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사회적 웰빙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예컨대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다고 자신

의 삶을 지각하고 평가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 웰빙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임영진 등(2010)은 Keyes(2005)가 제안한 정신적 웰빙을 진단하는 세 범주, 즉 번영(Flourishing), 양호(Moderately mentally healthy), 쇠약(Languishing)을 적용하여, 19세에서 80세의 한국 성인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 범주는 각각 8.1%, 72.8%, 1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 37.9%, 55.9%, 6.2%로 나타난 미국(Keyes, 2008)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번영은 적고 쇠약은 많음으로써, 한국인의 정신적 웰빙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정신적 웰빙 지표는 남아프리카공화국(Keyes, 2008)의 20.0%, 67.8%, 12.2%보다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정신건강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객관적 지표에 의거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이해하려는 시도 외에도, 한국인 행복인식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러한 노력들 중에서, 여기에서는 가족관계 또는 가정화목, 자기조절 및 자기효능감, 인간관계, 성취, 경제력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가족관계 또는 가정화목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전경숙과 정태연(2009)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족관계, 개성, 성적, 종교, 이성 친구, 외모, 자기발견, 경제력, 우정관계, 심리적 여유와 같은 10개의 요인이 밝혀졌다. 그중에서 가족관계 요인의 설명변량이 가장 높음으로써, 가족관계가 청

소년의 행복구성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였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은 고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 경숙, 정태연과 황병의(2008)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행복을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개념적으로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생활만족도를 측정한 연구들에서도,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어 왔다. 박영신과 김의철(200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해 주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며,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초, 중, 고, 대학생 집단의 높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의 연구에서는 단순 상관관계가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부모가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해 줄수록, 자녀들의 생활만족도가 증진되었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생활만족도를 유발하지만,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슬기와 방희정(2011)이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은 부적인 상관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박영신, 박영균, 김의철과 한기혜(2011)가 도시 및 농촌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경로분석을 하였을 때,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낮아진 효능감은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김오남(2004)이 모자 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도구적 지지, 가족 스트레스, 가족자원, 친구관계만족도, 자존감, 학교성적, 문제해결적 대처, 정서적 지지가 순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비록 가정환경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 즉 부모자녀관계가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김정민과 유안진(2005)은 부모 이혼여부가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모애착 변인을 추가하였다. 원래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부모 이혼여부는 유의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대해 유의한 예언변인으로서 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부모가 이혼을 하면 청소년자녀가 우울해지고 외로움을 느끼지만,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애착관계는 이러한 우울과 외로움을 감소시키며, 부모의 이혼여부가 더 이상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도 가족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a)은 초등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인과모형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

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매우 강한 직접 효과 및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배우자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을수록 성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만약 부부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될 경우는,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혼을 의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안귀옥, 2012).

둘째, 자기조절능력은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중요한 심리특성임이 밝혀져 왔다. 예컨대 한국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질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청소년과 성인 모두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자기조절을 지적하였다(김의철, 박영신, 2006b). 이러한 자기조절 개념범주를 구성하는 개념항목들은 긍정적 사고, 적극적 태도, 자기계발, 노력, 성실 등으로 대표되었다.

Bandura(1997)가 제안한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신념이고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통제 및 자기조절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행복이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변인인 것으로 양적 분석을 통한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한지숙(2011)이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들로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의 57%나 차지하였다. 박영신, 김의철과 박영균(2010)의 연구에서는 세대 차이와 갈등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이나 갈등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삶의 질이 감소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왔다.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11)가 초, 중, 고, 대학생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하였을 때,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셋째,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누적되어 왔다. 예컨대 김의철과 박영신(2001)이 IMF시대 한국 학생과 성인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대해 상관분석한 바에 의하면, 주위의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이 낮은 스트레스 및 높은 생활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었다.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모형을 LISREL 검증한 바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 의한 직접효과와 청소년 자기효능감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동시에 매우 의미있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작용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이라는 주제를 박영신과 김의철(2008b)은 인간관계 변인에 초점을 두고 정리한 바 있다.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와 삶의 질, 학교에서 교사학 생관계 및 친구관계와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에 토대하여, 변화하는 시대 맥락 속에서 인간관계와 삶의 질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예컨대 자녀가치와 가족관계의 변화, 정보화시대에 질적으로 변화하는 인간관계의 시각 등에서 청소년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검토되었다.

삶의 질 증진에 있어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과 박영신(2005)이 환자 집단에 대한 면접을 토대로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성취가 행복이나 삶의 질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어 왔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의 연구에서 높은 성취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하였다. 박영신, 김의철과 박은실(2009)이 교사를 대상으로 경로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직무성취도는 직무만족도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단기 종단분석에서 일관되게 밝혀졌다. 즉 직무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교사들일수록 직무성취도가 높았다.

성취와 행복의 관계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확인되어 왔는데, 청소년들의 경우는 특별히 학업과 관련된 성취가 중요하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이 한국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행복에 대해 의미있는 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물론 정서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보다는 행복에 대한 효과 크기가 작았으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더욱 행복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김오남(2004)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모자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학교성적이 의미있는 예측변인으로 포함된 바 있다. 즉 학교사회적 변인으로서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다섯째,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 경제적 요소가 어떠한 작용과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부각되었다. 동시에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경제 불안 및 정치 불안이 대표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서은국 등(2010)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사람의 특성 중에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포함된 바 있다. 전경숙, 정태연과 황병의(2008)가 고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행복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족관계와 더불어 경제적 성공이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임영진 등(2010)이 정신적 웰빙과 소득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정신적 웰빙 수치도 함께 상승하였다. 즉 가구별 월수입을 200만원 이하에서

부터 시작하여 500만원 이상까지 5개 범주로 구분하였을 때, 월수입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신적 웰빙 지수가 높았다.

그러나 과연 돈이 많이 있으면 더욱 행복한가? 만약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이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었다. 즉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의미있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월평균 수입 변인이 제외되어도 행복모형의 적합도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돈이 있을수록 더 행복하지만, 연구모형에 설정된 다른 변인들이 충족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음으로써,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4~5배 정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능감과 직업에서 성취감은 각각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자녀가 성공했다고 지각하면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1.5배 정도 되었다. 그러므로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나, 다른 변인들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와같이 경로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보다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했지만, 어쨌든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월평균 수입이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서의 행복감을 더 많이 누릴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2. 세대별, 학교수준별, 성별 행복의 차이

다양한 하위집단별로 행복이나 삶의 질 또는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 그 중 여기에서는, 이 연구에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토착심리를 규명함에 있어 하위집단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세대집단별, 학교수준별, 성별 행복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소년과 성인 세대 집단별 차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대 집단의 구분은 당연히 연령을 기반으로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대 집단과 더불어 연령별 차이를 다룬 연구들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의 연구에서 청소년과 성인은 삶의 질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 집단보다,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및 종합적인 삶의 질을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서은국 등(2010)이 개발한 행복지수 측정문항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연령별로 행복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행복지수 경우에 연령과 성별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남자는 40대 집단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으나, 여자는 40대 집단의 행복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전체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세 요소 중의 하나인 삶의 만족에서 연령별 주효과가 있었는데, 20대 젊은이들이 60대 이상 노인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동시에 삶의 만족 영역별, 연령별, 성별 상호작용효과가 밝혀졌다. 예컨대 개인적 삶의 만족에 있어서

는 20대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만족했으나, 40대 50대 집단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만족했다.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은 20대와 30대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40대가 되면서 남자는 감소하고 여자는 증가하여 소속 집단 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

행복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부정적 정서 경험에서도 연령별 주효과가 있었다. 즉 20대 젊은이들이 30대, 50대, 60대 이상 집단보다 부정적 정서(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한)를 더 자주 경험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20대 젊은이들이 60대 이상 노인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나, 어쨌든 연령별로 행복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전경숙, 정태연과 황병의(20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과 부모세대 간의 행복을 비교한 결과, 부모세대가 고등학생 자녀들보다 행복 수준이 높았다. 이와 반대로, 김명언, 김의철과 박영신(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성인세대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연령별로 행복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서은국 등(2010)의 결과와 달리, 임영진 등(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정신적 웰빙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물론 연령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5개 범주로 분류하고 정신적 웰빙을 비교하였을 때, 60대 이상의 노인이 타 연령 집단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신적 웰빙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60대 이상 노인 집단은 정신적 웰빙과 관련이 깊은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들 변인을 통제하고 연령 변인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는, 연령별로 정신적 웰빙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정신적 웰빙과 무관함을 보여주었다.

행복이 연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연령집단 간 행복의 차이 검증만이 아니라,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경로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이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7개 변인(월평균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성취, 자녀성공)의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다른 변인들은 모두 경로모형상에서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었으나, 연령변인은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매우 낮은 상관은 있었지만, 인과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연령이 적거나 많거나 하는 사실 자체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수준별 행복의 차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청소년과 부모 세대집단이 연령의 차이를 내포하듯이, 청소년 집단 내에서 학교수준별 집단도 연령의 차이를 동시에 의미한다. 이종한과 박은아(2010)가 학교수준별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을 때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가족의 화목이나 마음의 평화와 같은 내적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학벌, 직업, 돈과 같은 외적 조건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김의철과 박영신(2001)이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세 하위집단 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 세 집단 중에 가장 낮았다.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

은 가정생활에서나 학교생활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 변인도 행복을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정보 변인으로, 주로 성인 집단에서 확인되어 왔다. 서은국 등(2010)이 개발한 한국인 행복 지수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 행복의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 19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전체 행복지수가 의미있게 높았다. 행복의 구성요소별로 보았을 때, 삶의 만족도라는 인지적 측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였고, 정서의 측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c)은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한국 성인 남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결혼한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과정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는 직업에서의 성취가, 여자는 자녀의 성공이 행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성별과 직업유무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박영신과 김의철(2011)은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및 그들의 남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녀 차이만이 아니라, 여자 성인 중에서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차이가 있었다. 전업주부의 행복은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의 영향이 가장 컸으나, 그 다음으로 자녀행복, 월평균 수입, 연령의 순서를 보였다. 취업주부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은 배우자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 자녀행복, 월

평균 수입, 학력의 순서였다.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전체효과는 어려움극복효능감, 배우자 정서적 지원, 직업성취의 순서를 보였다.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전체효과는 배우자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년기 성인 남녀 집단 모두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은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변인이었다. 그러나 전업주부든 취업주부든 여자들은 자녀가 행복할수록 행복하였으나, 전업주부 남편이든 취업주부 남편이든 남자들은 자녀의 행복이 본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의미있는 변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자 성인들은 직업에서의 성취가 중요하였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자녀의 행복이 의미있는 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취업주부는 자녀의 행복보다는 본인 직업에서의 성취가 두 배 정도로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3.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를 규명하는데 있다. 물론 행복에 대해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부모들이 갖는 행복과 관련된 고유한 심리적 특성들이 어떠한가를 밝히는데 주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행복 및 불행에 관련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는, 한국인이 지각하는 행복 토착심리의 특징을 탐색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온 한국인 토착심

리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한국인 토착심리의 기반을 이해해 나가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들(김의철, 박영신, 2006b; 박영신, 김의철, 2006)에서 밝혀진 결과들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행복과 관련된 토착심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행복의 토착심리 규명을 위해,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 둘째는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셋째는 행복하기 위한 조건, 넷째는 가장 불행할 때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자유로운 반응을 의미에 따라 질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행복에 관련된 토착심리를 규명함에 있어, 표집된 전체집단의 반응패턴도 분석하지만, 하위집단을 분류하여 응답자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정리를 해 나가면,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행복 토착심리 질적 분석을 위한 하위집단 분류의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하위집단별 행복에서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과 부모 세대집단별 행복의 차이, 청소년

학교수준별 행복의 차이, 부모 성별 행복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은 총 3,268명으로서, 청소년 1,103명(초 322명, 중 287명, 고 213명, 대 281명)이고 그들의 부모 2,165명(부 1,076명, 모 1,089명)이었다. 그러나 수거된 답지를 모두 검토한 결과, 많은 응답을 빠뜨리거나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답지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부모의 답지가 없고 청소년만 응답한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성실한 응답으로 간주되어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자료의 수는 표 1과 같다. 청소년 985명(초 269명, 중 270명, 고 211명, 대 235명)이었으며, 그들의 아버지 985명, 어머니 985명으로 구성되어 부모가 1,970명이었다. 따라서 전체 분석대상 수는 2,955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451명, 여자가 1,504명이었다.

분석대상의 배경정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은 초등학생이 평균 11.68세, 중학생은 13.58

표 1. 분석대상

성별	집단 전체	청소년					부모								
		초	중	고	대	계	초등		중		고		대		계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남	1,451	143	134	103	86	466	269	-	270	-	211	-	235	-	985
여	1,504	126	136	108	149	519	-	269	-	270	-	211	-	235	985
계	2,955	269	270	211	235	985	269	269	270	270	211	211	235	235	1,970

세, 고등학생은 15.84세, 대학생은 20.97세이었다. 분석대상의 객관적 학업성취 수준은 수/A 17.0%, 우/B 43.4%, 미/C 29.8%, 양/D 7.8%, 가/F 2.0%의 분포였다.

부모집단의 평균 연령은 44.52세로서, 범위는 32세부터 64세까지였다. 하위집단별 연령 평균은 초등학생 부모가 41.87세, 중학생 부모는 42.69세, 고등학생 부모는 44.73세, 대학생 부모는 49.40세이었다. 부모집단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1.3%, 중학교 졸업이 42.%, 고등학교 졸업이 48.9%, 대학교 졸업이 41.0%, 대학원 졸업이 4.6%였다. 직업은 무직/가정주부 23.1%, 노동/생산직 15.0%, 판매/서비스직 24.3%, 사무/관리직 23.2%, 고위관리/전문직 14.3%로 구성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최상 0.5%, 상 12.2%, 중 72.9%, 하 13.2%, 최하 1.2% 이었고, 사회계층은 최상류층 0.4%, 상류층 7.5%, 중류층 76.2%, 하류층 14.8%, 극빈층 1.1% 이었다.

2.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다. 질문지의 유형은 청소년용과 부모용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청소년용 질문지는 배경정보와 행복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배경정보로는 연령, 성별, 학업성취도를 질문하였다. 행복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 및 전반적인 행복의 정도를 질문하고, 각각에 대해 ‘매우 불행’에서 ‘매우 행복’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언제 가장 행복하였는지, 언제 가장 불행

하였는지, 행복하기 위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했다.

부모용 질문지도 배경정보와 행복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점에서 청소년용 질문지와 동일하였다. 단, 배경정보에 포함된 문항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성인 집단에 적절하도록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가정의 경제수준, 사회계층을 질문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에서 행복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및 전반적인 행복의 정도를 질문함으로써, 청소년 질문지에서 학교생활이 부모용 질문지에서 직장생활로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하였다. 답지는 각각에 대해 ‘매우 불행’에서 ‘매우 행복’으로 대표되는 5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행복의 토착심리 분석을 위해, 청소년용 질문지와 동일하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행복을 위해 본인이 해야 할 일, 행복의 조건에 대해 응답자가 자유반응하도록 문항이 제작되었다.

청소년과 부모의 행복 토착심리에 대한 자유반응형 응답은 유사 개념끼리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채점자간 신뢰도를 구한 결과는 95.8%로 높게 나타났다.

3. 실시 및 분석방법

제작된 청소년용 질문지는 초, 중, 고, 대학교의 수업시간에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실시하거나, 그들의 협조 아래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청소년들에게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질문지를 모두 배부하고, 각자 집에서 실시해 와

서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실에서 청소년용 질문지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30분이었다. 부모용 질문지를 갖고 오지 않는 경우는 계속 독려하여 최대한 수거를 노력하였다.

수거된 질문지는 성실하게 응답되었는지 모두 검토되었으며, 또한 청소년과 부모의 답지가 모두 수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최종분석대상이 확정되었다. 행복과 관련하여 질적으로 응답된 4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들이 모두 입력되었으며, 동일한 반응들끼리 묶여 항목에 이름을 붙이고, 유사한 항목들을 묶어서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범주와 항목으로 제작된 개념 틀에 기초하여, 모든 응답들이 숫자로 코딩되었으며, 입력된 자료에 대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질적 측정을 시도하는 문항 외에 양적 측정을 목표로 한 문항들이 있었다. 종합적인 행복 및 행복의 하위영역들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들은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에 활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청소년과 부모 집단별 행복의 차이

청소년과 부모 집단별 행복의 차이를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과 부모 세대별 행복의 차이, 둘째, 청소년 하위집단으로서 학교수준별 행복의 차이, 셋째, 부모 하위집단으로서 성별 행복의 차이로 접근하였다.

먼저 청소년과 부모 세대별 행복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청소년과 부모 집단은 전반적 행복에서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이 부모보다 약간 더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부모 세대보다는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 더 높았다.

두 세대 집단별 행복의 하위영역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정생활과 여가생활에서 모두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이 부모보다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에서 모두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가

표 2. 청소년과 부모 세대별 행복의 차이 *t*-검증

종속변인 \ 독립변인	성별	N	M	SD	t
전반적 행복	청소년	974	3.94	.79	3.06**
	부모	1954	3.85	.79	
가정생활	청소년	982	4.12	.88	13.40***
	부모	1967	4.06	.84	
여가생활	청소년	978	4.03	.91	13.43***
	부모	1943	3.55	.92	

** $p<.01$, *** $p<.001$

정생활 및 여가생활에서 부모보다 더욱 행복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청소년 집단 내에서 하위집단별 행복의 차이를 분석해 보기 위해 먼저 성별로 분류하였다. 남녀 청소년의 행복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전반적 행복($t=-.67, p=.502$)과 행복의 하위영역별 분석에서 모두 $p>.05$ 수준으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생활($t=-.62, p=.534$), 학교생활($t=-1.57, p=.118$), 여가생활($t=.63, p=.528$). 그러므로 남녀 청소년은 전반적인 행복 수준만이 아니라,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및 여가생활에서의 행복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청소년 하위집단을 학교수준별로 분류하여 행복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 행복은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증 결과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동질집단으로 나왔고, 이 세집단과 초등학생만 이질집단이였다. 초등학생이 나머지 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초등학생이 중 고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행복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행복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영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정생활은 $p>.05$ 수준으로서 학교수준별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

표 3. 청소년 학교수준별 행복의 차이 일원변량분석

종속변인 \ 독립변인	학교수준	N	M	sd	F
전반적 행복	초등학생	263	4.13 ^b	.82	8.14 ^{***}
	중학생	268	3.90 ^a	.81	
	고등학생	208	3.78 ^a	.78	
	대학생	235	3.92 ^a	.68	
가정 생활	초등학생	266	4.22	.87	1.79
	중학생	270	4.10	.94	
	고등학생	211	4.04	.89	
	대학생	235	4.11	.82	
학교생활	초등학생	266	3.91 ^b	.88	6.39 ^{***}
	중학생	269	3.82 ^{ab}	.92	
	고등학생	211	3.64 ^a	.84	
	대학생	235	3.61 ^a	.87	
여가생활	초등학생	265	4.30 ^c	.86	13.76 ^{***}
	중학생	269	4.04 ^b	.91	
	고등학생	209	3.96 ^{ab}	.95	
	대학생	235	3.80 ^a	.87	

a, b, c는 Scheffe검증 결과임. *** $p<.001$

었다. 네 집단의 평균값을 보면, 모두 4.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초, 중, 고, 대학생 모두 가정에서 높은 행복감을 갖고 있고, 그러한 공통적인 경향 때문에, 집단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학교생활은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Scheffe 검증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생이 이질집단이고, 중학생은 또 다른 이질집단이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동질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행복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초등학교생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며, 이 두 집단에 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여가생활도 학교생활과 마찬가지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증 결과는, 초 중 고 대학생 모두 각각 이질 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집단별로 여

가생활에서 행복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생이 가장 높고, 학교수준이 점차 높아질수록 낮은 평균값을 보여, 대학생 때 여가생활에서 행복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생들이 여가생활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고, 중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는 부모 하위집단을 성별로 분류하였을 때 행복에서의 차이를 t -검정한 결과이다. 전반적 행복은 $p > .05$ 수준으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은 전반적인 행복에서 차이가 없고 거의 유사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행복의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생활에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집단의 행복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아버지가 어머니 집단보다 더욱 높은 값을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이 다른 하위영역보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행복수준이 높았는데, 성별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가정에서 행복이 더 큰 것으로 설명된다.

표 4. 부모 성별 행복의 차이 t -검증

종속변인 \ 독립변인	성별	N	M	SD	t
전반적 행복	부	976	3.85	.78	.29
	모	978	3.84	.79	
가정생활	부	983	4.13	.83	3.43 ***
	모	984	4.00	.85	
직장생활	부	964	3.56	.78	-1.85
	모	646	3.64	.77	
여가생활	부	973	3.56	.90	.50
	모	970	3.54	.94	

*** $p < .001$

하위영역 중에서 직장생활 및 여가생활에서 행복의 차이를 t -검정한 결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은 직장생활이나 여가생활에서 지각하는 행복의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지각

이상에서 청소년과 부모 집단별 행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과 부모 세대별로 행복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 집단 내에서 성별로는 행복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수준별로는 전반적 행복과 학교생활 및 여가생활의 행복에서 차이가 있었다. 부모 집단 경우에, 성별에 따라 가정생활 행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한국인의 행복과 관련된 토착심리를 규명함에 있어, 전체 집단만이 아니라, 하위집단별로 분석할 필요가 시사된다. 청소년과 부모 세대별로, 청소년 집단 내에서 학교수준별로, 부모 집단 내에서 성별로 행복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행복과 관련된 토착심리 규명 과정에서, 이러한 하위집단별 분석을 추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부모의 행복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을 위한 표 5~표 8을 전체집단만이 아니라, 청소년과 부모 세대별, 청소년 학교수준별, 부모 성별로 분석하였다.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에 대한 토착심리를 규명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의 화목이 39.0%

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이 범주에는 가족과 함께 함이 대표적이었고, 이외에 가정 화목, 가족여행, 가족간 대화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0%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보인 범주는 2개 있었는데, 자녀의 출산과 성장 범주에는 자녀의 출산, 성장, 성공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성취 범주에는 목표성취, 학업성취, 인정받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5%~10% 사이의 반응율을 보인 대표적 범주들로는 휴식 및 여가시간, 건강, 원만한 인간관계와 같은 세 개의 범주가 있었다. 휴식 및 여가시간 범주는 휴식시간, 하고싶은 것을 함, 여행, 여가생활, 컴퓨터 게임함과 같은 항목들이 대표적이었고, 건강 범주는 가족 건강, 자녀 건강, 개인 건강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었다. 원만한 인간관계 범주에는 친구와 놀 때가 가장 대표적이었고, 이외에 사람들과 어울림, 원만한 인간관계와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비록 5% 미만이지만 대표적인 범주들로는 정서적 안녕감, 지난 시절, 경제적 안정과 같은 범주들이 포함되었다.

청소년 집단 경우에 가정의 화목이 30.9%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휴식 및 여가시간(17.9%) 원만한 인간관계(17.0%) 개인적 성취(15.9%)가 각각 15%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나타낸 세 범주였다. 부모 집단도 가정의 화목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는데, 청소년보다도 더 비율이 높아 43.1%나 됨으로써, 거의 2명 중 1명 정도가 가정이 화목할 때 행복하다는 반응을 하였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출산과 성장으로서 응답자의 20.0%가 지적함으로써, 부모는 5명 중에서 1명이 자녀의 출산과 성장에 관련하여 가장 행복감을 느

표 5.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

범주		청소년(%)							부모(%)	
		전체(%)	초	중	고	대	계(%)	부	모	계(%)
1. 가정의 화목		1091(39.0)	86(32.0)	99(38.7)	52(26.3)	57(24.9)	294(30.9)	398(43.1)	399(43.1)	797(43.1)
① 가족과 함께 함		456(16.3)	38(14.1)	49(19.1)	29(14.6)	27(11.8)	143(15.0)	161(17.4)	152(16.4)	313(16.9)
② 가정 화목		253(9.0)	11(4.1)	12(4.7)	8(4.0)	11(4.8)	42(4.4)	118(12.8)	93(10.0)	211(11.4)
③ 가족 여행		152(5.4)	26(9.7)	16(6.3)	6(3.0)	9(3.9)	57(6.0)	46(5.0)	49(5.3)	95(5.1)
④ 가족간 대화		61(2.2)	7(2.6)	9(3.5)	7(3.5)	3(1.3)	26(2.7)	7(.8)	28(3.0)	35(1.9)
⑤ 가족과 함께 식사		50(1.8)	3(1.1)	7(2.7)	2(1.0)	1(.4)	13(1.4)	20(2.2)	17(1.8)	37(2.0)
⑥ 가족간 사랑과 믿음		49(1.7)	1(.4)	6(2.3)	-	5(2.2)	12(1.3)	14(1.5)	23(2.5)	37(2.0)
⑦ 행복한 결혼생활		40(1.4)	-	-	-	-	-	26(2.8)	14(1.5)	40(2.2)
⑧ 가족의 성취		30(1.1)	-	-	-	1(.4)	1(.1)	6(.7)	23(2.5)	29(1.6)
2. 자녀의 출산과 성장		370(13.2)	-	-	-	-	-	167(18.1)	203(21.9)	370(20.0)
① 자녀 출산		179(6.4)	-	-	-	-	-	86(9.3)	93(10.0)	179(9.7)
② 자녀 성장		100(3.6)	-	-	-	-	-	38(4.1)	62(6.7)	100(5.4)
③ 자녀의 성공		91(3.2)	-	-	-	-	-	43(4.7)	48(5.2)	91(4.9)
3. 개인적 성취		283(10.1)	33(12.3)	33(12.9)	22(11.1)	63(27.5)	151(15.9)	82(8.9)	50(5.4)	132(7.1)
① 목표성취		130(4.6)	7(2.6)	11(4.3)	10(5.1)	20(8.7)	48(5.0)	48(5.2)	34(3.7)	82(4.4)
② 학업성취		62(2.2)	13(4.8)	16(6.3)	9(4.5)	24(10.5)	62(6.5)	-	-	-
③ 인정받음		59(2.1)	13(4.8)	6(2.3)	3(1.5)	6(2.6)	28(2.9)	26(2.8)	5(.5)	31(1.7)
④ 적성에 맞는 일함		32(1.1)	-	-	-	13(5.7)	13(1.4)	8(.9)	11(1.2)	19(1.0)
4. 휴식 및 여가시간		264(9.4)	62(23.0)	50(19.5)	37(18.7)	21(9.2)	170(17.9)	54(5.9)	40(4.3)	94(5.1)
① 휴식시간		77(2.7)	10(3.7)	16(6.3)	8(4.0)	10(4.4)	44(4.6)	24(2.6)	9(1.0)	33(1.8)
② 하고 싶은 것 함		67(2.4)	13(4.8)	15(5.9)	17(8.6)	4(1.7)	49(5.1)	9(1.0)	9(1.0)	18(1.0)
③ 여행		55(2.0)	16(5.9)	3(1.2)	5(2.5)	4(1.7)	28(2.9)	13(1.4)	14(1.5)	27(1.5)
④ 여가생활		36(1.3)	3(1.1)	9(3.5)	5(2.5)	3(1.3)	20(2.1)	8(.9)	8(.9)	16(.9)
⑤ 컴퓨터 게임함		29(1.0)	20(7.4)	7(2.7)	2(1.0)	-	29(3.0)	-	-	-
5. 건강		194(6.9)	4(1.5)	3(1.2)	2(1.0)	-	9(.9)	94(10.2)	91(9.8)	185(10.0)
① 가족 건강		152(5.4)	3(1.1)	2(.8)	2(1.0)	-	7(.7)	74(8.0)	71(7.7)	145(7.8)
② 자녀 건강		25(.9)	-	-	-	-	-	11(1.2)	14(1.5)	25(1.4)
③ 개인 건강		17(.6)	1(.4)	1(.4)	-	-	2(.2)	9(1.0)	6(.6)	15(.8)
6. 원만한 인간관계		169(6.0)	51(19.0)	38(14.8)	44(22.2)	29(12.7)	162(17.0)	3(.3)	4(.4)	7(.4)
① 친구와 놀 때		124(4.4)	45(16.7)	35(13.7)	31(15.7)	9(3.9)	120(12.6)	3(.3)	1(.1)	4(.2)
② 사람들과 어울림		26(.9)	1(.4)	-	12(6.1)	13(5.7)	26(2.7)	-	-	-
③ 원만한 인간관계		19(.7)	5(1.9)	3(1.2)	1(.5)	7(3.1)	16(1.7)	-	3(.3)	3(.2)
7. 정서적 안녕감		133(4.7)	21(7.8)	15(5.9)	23(11.6)	12(5.2)	71(7.5)	22(2.4)	40(4.3)	62(3.4)
① 정서적 여유		56(2.0)	8(3.0)	8(3.1)	6(3.0)	9(3.9)	31(3.3)	6(.7)	19(2.1)	25(1.4)
② 즐거움		42(1.5)	13(4.8)	6(2.3)	13(6.6)	-	32(3.4)	5(.5)	5(.5)	10(.5)
③ 신앙생활		35(1.2)	-	1(.4)	4(2.0)	3(1.3)	8(.8)	11(1.2)	16(1.7)	27(1.5)
8. 지난 시절		95(3.4)	6(2.2)	3(1.2)	9(4.5)	29(12.7)	47(4.9)	26(2.8)	22(2.4)	48(2.6)
① 어린시절		35(1.2)	6(2.2)	2(.8)	8(4.0)	12(5.2)	28(2.9)	5(.5)	2(.2)	7(.4)
② 신혼시절		23(.8)	-	-	-	-	-	12(1.3)	11(1.2)	23(1.2)
③ 학창시절		19(.7)	-	-	-	9(3.9)	9(.9)	3(.3)	7(.8)	10(.5)
④ 연애시절		18(.6)	-	1(.4)	1(.5)	8(3.5)	10(1.1)	6(.7)	2(.2)	8(.4)
9. 경제적 안정		93(3.3)	2(.7)	2(.8)	2(1.0)	2(.9)	8(.8)	46(5.0)	39(4.2)	85(4.6)
① 내 집 마련		34(1.2)	-	-	-	-	-	18(2.0)	16(1.7)	34(1.8)
② 안정된 수입		32(1.1)	-	-	-	-	-	19(2.1)	13(1.4)	32(1.7)
③ 경제적 여유		19(.7)	-	-	-	-	-	9(1.0)	10(1.1)	19(1.0)
④ 용돈 받음		8(.3)	2(.7)	2(.8)	2(1.0)	2(.9)	8(.8)	-	-	-
10. 향상 행복함		63(2.2)	2(.7)	7(2.7)	4(2.0)	9(3.9)	22(2.3)	15(1.6)	26(2.8)	41(2.2)
11. 기타		46(1.6)	2(.7)	6(2.3)	3(1.5)	7(3.1)	18(1.9)	16(1.7)	12(1.3)	28(1.5)
① 없음		41(1.5)	1(.4)	4(1.6)	3(1.5)	6(2.6)	14(1.5)	16(1.7)	11(1.2)	27(1.5)
② 기타		5(.2)	1(.4)	2(.8)	-	1(.4)	4(.4)	-	1(.1)	1(.1)
계		2801(100)	269(100)	256(100)	198(100)	229(100)	952(100)	923(100)	926(100)	1849(100)

표 6.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범주		청소년(%)					부모(%)		
집단	전체(%)	초	중	고	대	계(%)	부	모	계(%)
1. 자기조절	1192(42.5)	83 (32.8)	119 (47.0)	105 (52.5)	120 (51.7)	430(45.4)	377 (40.8)	385 (41.1)	762(40.9)
① 꾸준한 노력	406(14.5)	23 (8.8)	46 (18.2)	29 (14.5)	44 (19.0)	142(15.0)	142 (15.4)	122 (13.0)	264(14.2)
② 긍정적 사고	280(10.0)	19 (7.3)	22 (8.7)	38 (19.0)	52 (22.4)	131(13.8)	50 (5.4)	99 (10.6)	149(8.0)
③ 최선을 다함	171(6.1)	12 (4.6)	8 (3.2)	5 (2.5)	4 (1.7)	29(3.1)	101 (10.9)	41 (4.4)	142(7.6)
④ 자기관리	130(4.6)	16 (6.1)	20 (7.9)	11 (5.5)	14 (6.0)	61(6.4)	29 (3.1)	40 (4.3)	69(3.7)
⑥ 마음 비움	100(3.6)	2 (.8)	4 (1.6)	7 (3.5)	5 (2.2)	18(1.9)	38 (4.1)	44 (4.7)	82(4.4)
⑦ 밝은 생활태도	56(2.0)	9 (3.4)	15 (5.9)	13 (6.5)	1 (.4)	38(4.0)	4 (.4)	14 (1.5)	18(1.0)
⑧ 인내함	49(1.7)	5 (1.9)	4 (1.6)	2 (1.0)	-	11(1.2)	13 (1.4)	25 (2.7)	38(2.0)
2. 가정의 화목	434(15.5)	36 (13.7)	26 (10.3)	12 (6.0)	8 (3.4)	82(8.7)	193 (20.9)	159 (17.0)	352(18.9)
① 가정화목	104(3.7)	11 (4.2)	7 (2.8)	2 (1.0)	2 (.9)	22(2.3)	46 (5.0)	36 (3.8)	82(4.4)
② 가정에 충실	85(3.0)	1 (.4)	1 (.4)	2 (1.0)	-	4(.4)	48 (5.2)	33 (3.5)	81(4.4)
③ 가족간 대화	77(2.7)	3 (1.1)	2 (.8)	6 (3.0)	1 (.4)	12(1.3)	40 (4.3)	25 (2.7)	65(3.5)
④ 가족과 함께 함	56(2.0)	6 (2.3)	2 (.8)	1 (.5)	2 (.9)	11(1.2)	25 (2.7)	20 (2.1)	45(2.4)
⑤ 가족간 사랑	47(1.7)	-	-	-	-	-	24 (2.6)	23 (2.5)	47(2.5)
⑥ 부모님께 순종	33(1.2)	15 (5.7)	14 (5.5)	1 (.5)	3 (1.3)	33(3.5)	-	-	-
⑦ 자녀양육	32(1.1)	-	-	-	-	-	10 (1.1)	22 (2.4)	32(1.7)
3. 원만한 인간관계	308(11.0)	43 (16.4)	30 (11.9)	19 (9.5)	31 (13.4)	123(13.0)	77 (8.3)	108 (11.5)	185(9.9)
① 상대방 배려	155(5.5)	11 (4.2)	7 (2.8)	5 (2.5)	5 (2.2)	28(3.0)	55 (5.9)	72 (7.7)	127(6.8)
② 사랑과 믿음	61(2.2)	2 (.8)	3 (1.2)	2 (1.0)	6 (2.6)	13(1.4)	16 (1.7)	32 (3.4)	48(2.6)
③ 사람들과 어울림	49(1.7)	5 (1.9)	7 (2.8)	7 (3.5)	20 (8.6)	39(4.1)	6 (.6)	4 (.4)	10(.5)
④ 친구와 놀기	43(1.5)	25 (9.5)	13 (5.1)	5 (2.5)	-	43(4.5)	-	-	-
4. 건강관리	234(8.3)	3 (1.1)	3 (1.2)	4 (2.0)	2 (.9)	12(1.3)	107 (11.6)	115 (12.3)	222(11.9)
① 건강관리	205(7.3)	3 (1.1)	3 (1.2)	4 (2.0)	2 (.9)	12(1.3)	100 (10.8)	93 (9.9)	193(10.4)
② 가족 건강관리	29(1.0)	-	-	-	-	-	7 (.8)	22 (2.4)	29(1.6)
5. 정서적 안녕감	183(6.5)	16 (6.1)	9 (3.6)	8 (4.0)	21 (9.1)	54(5.7)	47 (5.1)	82 (8.8)	129(6.9)
① 만족감	92(3.3)	12 (4.6)	6 (2.4)	6 (3.0)	9 (3.9)	33(3.5)	21 (2.3)	38 (4.1)	59(3.2)
② 심리적 여유	57(2.0)	4 (1.5)	2 (.8)	2 (1.0)	11 (4.7)	19(2.0)	14 (1.5)	24 (2.6)	38(2.0)
③ 신앙생활	34(1.2)	-	1 (.4)	-	1 (.4)	2(.2)	12 (1.3)	20 (2.1)	32(1.7)
6. 공부를 열심히 함	127(4.5)	48 (18.3)	38 (15.0)	22 (11.0)	19 (8.2)	127(13.4)	-	-	-
① 열심히 공부함	73(2.6)	24 (9.2)	22 (8.7)	16 (8.0)	11 (4.7)	73(7.7)	-	-	-
② 공부함	36(1.3)	16 (6.1)	10 (4.0)	5 (2.5)	5 (2.2)	36(3.8)	-	-	-
③ 학생본분에 충실	18(.6)	8 (3.1)	6 (2.4)	1 (.5)	3 (1.3)	18(1.9)	-	-	-
7. 휴식 및 여가시간	111(4.0)	17 (6.5)	18 (7.1)	16 (8.0)	6 (2.6)	57(6.0)	24 (2.6)	30 (3.2)	54(2.9)
① 자유시간	51(1.8)	14 (5.3)	17 (6.7)	10 (5.0)	5 (2.2)	46(4.9)	2 (.2)	3 (.3)	5(.3)
② 휴식	25(.9)	3 (1.1)	1 (.4)	6 (3.0)	1 (.4)	11(1.2)	8 (.9)	6 (.6)	14(.8)
③ 취미활동	24(.9)	-	-	-	-	-	10 (1.1)	14 (1.5)	24(1.3)
④ 여가생활	11(.4)	-	-	-	-	-	4 (.4)	7 (.7)	11(.6)
8. 경제적 안정	109(3.9)	-	1 (.4)	2 (1.0)	6 (2.6)	9(1.0)	63 (6.8)	37 (4.0)	100(5.4)
① 안정적 수입	42(1.5)	-	1 (.4)	2 (1.0)	5 (2.2)	8(.8)	21 (2.3)	13 (1.4)	34(1.8)
② 경제적 여유	35(1.2)	-	-	-	1 (.4)	1(.1)	20 (2.2)	14 (1.5)	34(1.8)
③ 경제적 능력	32(1.1)	-	-	-	-	-	22 (2.4)	10 (1.1)	32(1.7)
9. 개인적 성취	65(2.3)	3 (1.1)	4 (1.6)	10 (5.0)	14 (6.0)	31(3.3)	26 (2.8)	8 (.9)	34(1.8)
① 적성에 맞는 일함	25(.9)	-	-	5 (2.5)	4 (1.7)	9(1.0)	10 (1.1)	6 (.6)	16(.9)
② 사회적 성공	21(.7)	1 (.4)	2 (.8)	1 (.5)	3 (1.3)	7(.7)	12 (1.3)	2 (.2)	14(.8)
③ 목표성취	19(.7)	2 (.8)	2 (.8)	4 (2.0)	7 (3.0)	15(1.6)	4 (.4)	-	4(.2)
10. 기타	45(1.6)	10 (3.8)	5 (2.0)	2 (1.0)	5 (2.2)	22(2.3)	11 (1.2)	12 (1.3)	23(1.2)
① 없음	38(1.4)	9 (3.4)	4 (1.6)	-	4 (1.7)	17(1.8)	9 (1.0)	12 (1.3)	21(1.1)
② 기타	7(.2)	1 (.4)	1 (.4)	2 (1.0)	1 (.4)	5(.5)	2 (.2)	-	2(.1)
계	2808(100)	262 (100)	253 (100)	200 (100)	232 (100)	947(100)	925 (100)	936 (100)	1861(100)

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건강 범주로서, 응답자의 10.0%가 건강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 청소년과 부모 집단 모두 가정이 화목할 때 행복하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 경향은 초 중 고 대학생 집단별로나 부와 모 집단별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가정의 화목 범주 다음으로 높은 반응율의 순서에서는 세대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은 자유로운 휴식 및 여가시간과 원만한 인간관계 및 개인적 성취가 대표적으로 부각되었다면, 부모는 자녀의 출산과 성장, 건강을 더욱 많이 지적하였다.

3.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청소년과 부모가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각하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보면, 자기조절이 42.5%나 됴으로써 응답자 거의 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자기조절에는 꾸준한 노력, 긍정적 사고, 최선을 다함이 대표적인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이외에도 자기관리, 마음 비움, 밝은 생활태도, 인내함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이외에 10%를 넘는 대표적인 범주들로는 가정의 화목(15.5%)과 원만한 인간관계(11.0%)였다. 가정의 화목 범주에는 가정에 충실, 가족간 대화, 가족과 함께 함과 같은 항목들이, 원만한 인간관계 범주에는 상대방 배려, 사랑과 믿음, 사람들과 어울림 등의 항목들이 포

함되었다. 그 다음에 5~10%에 해당하는 범주들로는 건강관리, 정서적 안정감이, 5% 미만이지만 의미있는 범주들로는 공부를 열심히 함, 휴식 및 여가시간, 경제적 안정, 개인적 성취가 있었다.

청소년 집단의 반응 분포를 보면, 자기조절이 45.4%로 가장 높은 반응 범주였고, 그 다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함(13.4%), 원만한 인간관계(13.0%)가 각각 10%가 넘는 범주였다. 부모 집단의 경우에는 자기조절이 40.9%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10%를 넘는 대표적 범주로는 가정의 화목(18.9%)과 건강관리(11.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9.9%) 범주가 뒤를 이었다. 그러므로 청소년 집단이나 부모 집단 모두 행복하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일로서 자기조절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점이 일치하고, 이러한 인식은 각 집단에서 거의 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야 한다고 보았고, 부모들은 가정의 화목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더불어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4.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의 조건

표 7은 행복의 조건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지각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의 화목이 29.5%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는데, 가족간의 사랑, 가족과 함께 함 등의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건강 범주 또한 21.4%로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보였는데,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이 포함되었다. 그 다음에 10~20% 사이의 높은 반응율을 보인 범주는 자기조절(14.5%), 정서적 안녕감(13.5%), 원만한 인간관계(10.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외에 5% 미만이었지만 의미있는 범주로 확인된 것은 경제적 안정, 휴식 및 여가시간, 개인적 성취가 포함되었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 3개의 범주가 비슷한 반응율을 보였는데, 가정의 화목이 2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20.3%), 정서적 안녕감(19.5%)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범주가 14.7%로 뒤를 이었다. 부모 집단도, 가정의 화목이 33.5%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건강이 28.5%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자기조절(11.6%)과 정서적 안녕감(10.5%)이 10% 이상의 비율로 대표적인 범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과 부모 집단 모두 가정의 화목을 행복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청소년은 가정의 화목 못지않게 자기조절과 정서적 안녕감을 행복의 조건으로 많이 지적하였다면, 부모는 건강을 가정의 화목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차이가 있었다.

5. 청소년과 부모의 불행에 대한 지각

청소년과 부모의 불행에 대한 지각을 규명하기 위해, 표 8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장 불행할 때에 대한 지각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가정의 불화가 24.4%로 응답자의 1/4이 응답한 가장 대표적인 범주였다.

가정의 불화 범주에는 부모자녀 갈등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싸움, 가족간 불화, 가족간 의견충돌, 가족간 이해부족과 같은 항목들이 나타났다. 두 번째 범주는 건강 문제로서 17.5%로 매우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10% 내외의 높은 반응율을 보인 범주가 3개 있었는데, 개인적 성취 어려움(10.9%), 인간관계 어려움(10.1%), 경제적 어려움(9.9%)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 가장 불행한 때로서 가정의 불화가 26.2%로 가장 높았는데, 그 범주에 속한 항목들 중에서 부모자녀 갈등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어려움(18.1%)과 개인적 성취 어려움(17.7%) 범주가 각각 2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었다. 정서적 불만(10.3%)도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였다.

부모 집단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불화가 23.4%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는데, 건강 문제도 22.6%로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가 넘는 반응율을 보인 범주는 경제적 어려움(14.4%)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든 부모든 모두,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불행하게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인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불행하게 지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불행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가정의 불화 다음으로, 인간관계 어려움과 개인적 성취의 어려움이 비슷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행복하기 위한 조건

범주 집단	전체(%)	청소년(%)					부모(%)		
		초	중	고	대	계	부	모	계
1. 가정의 화목	838(29.5)	64(24.5)	67(26.2)	31(15.4)	44(19.0)	206(21.7)	335(35.4)	297(31.6)	632(33.5)
① 가족간 사랑	388(13.7)	23(8.8)	30(11.7)	16(8.0)	17(7.3)	86(9.1)	144(15.2)	158(16.8)	302(16.0)
② 가정화목	230(7.8)	12(4.6)	14(5.5)	6(3.0)	12(5.2)	44(4.6)	116(12.3)	70(7.4)	186(9.9)
③ 가족과 함께 함	168(5.9)	25(9.6)	19(7.5)	7(3.5)	13(5.6)	64(6.8)	53(5.6)	51(5.4)	104(5.5)
④ 가족간 대화	52(1.8)	4(1.5)	4(1.6)	2(1.0)	2(.9)	12(1.3)	22(2.3)	18(1.9)	40(2.1)
2. 건강	608(21.4)	25(9.6)	18(7.0)	19(9.5)	9(3.9)	71(7.5)	267(28.2)	270(28.7)	537(28.5)
① 개인건강	470(16.6)	19(7.3)	11(4.3)	19(9.5)	8(3.4)	57(6.0)	206(21.8)	207(22.0)	413(21.9)
② 가족건강	138(4.9)	6(2.3)	7(2.7)	-	1(.4)	14(1.5)	61(6.4)	63(6.7)	124(6.6)
3. 자기조절	411(14.5)	45(17.2)	51(19.9)	47(23.4)	50(21.6)	193(20.3)	101(10.7)	117(12.4)	218(11.6)
① 긍정적 사고	145(5.1)	13(5.0)	14(5.5)	21(10.5)	20(8.6)	68(7.1)	31(3.3)	46(4.9)	77(4.1)
② 마음 비움	114(4.0)	1(.4)	10(3.9)	12(6.0)	23(9.9)	46(4.8)	34(3.6)	34(3.6)	68(3.6)
③ 노력	70(2.5)	11(4.2)	11(4.3)	3(1.5)	4(1.7)	29(3.1)	19(2.0)	22(2.3)	41(2.2)
④ 밝은 생활태도	57(2.0)	18(6.9)	10(3.9)	9(4.5)	1(.4)	38(4.0)	9(1.0)	10(1.1)	19(1.0)
⑤ 자기관리	25(.9)	2(.8)	6(2.3)	2(1.0)	2(.9)	12(1.3)	8(.8)	5(.5)	13(.7)
4. 정서적 안녕감	383(13.5)	34(13.0)	39(15.2)	43(21.4)	69(29.7)	185(19.5)	79(8.4)	119(12.7)	198(10.5)
① 만족감	176(6.2)	7(2.7)	11(4.3)	21(10.4)	36(15.5)	75(7.9)	36(3.8)	65(6.9)	101(5.4)
② 심리적 안정	107(3.8)	8(3.1)	9(3.5)	15(7.5)	21(9.1)	53(5.6)	24(2.5)	30(3.2)	54(2.9)
③ 정서적 여유	47(1.7)	2(.8)	6(2.3)	2(1.0)	11(4.7)	21(2.2)	8(.8)	18(1.9)	26(1.4)
④ 즐거움	36(1.3)	17(6.5)	13(5.1)	5(2.5)	1(.4)	36(3.8)	-	-	-
⑤ 신앙생활	17(.6)	-	-	-	-	-	11(1.2)	6(.6)	17(.9)
5. 원만한 인간관계	285(10.0)	48(18.4)	35(13.7)	25(12.4)	32(13.8)	140(14.7)	66(7.0)	79(8.4)	145(7.7)
① 상대방 배려	196(6.9)	27(10.3)	26(10.2)	7(3.5)	4(1.7)	64(6.7)	58(6.1)	74(7.9)	132(7.0)
② 사람들과 어울림	42(1.5)	11(4.2)	-	9(4.5)	14(6.0)	34(3.6)	5(.5)	3(.3)	8(.4)
③ 원만한 인간관계	26(.9)	-	4(1.6)	3(1.5)	14(6.0)	21(2.2)	3(.3)	2(.2)	5(.3)
④ 친구와 놀기	21(.7)	10(3.8)	5(2.0)	6(3.0)	-	21(2.2)	-	-	-
6. 경제적 안정	138(4.9)	1(.4)	5(2.0)	11(5.5)	11(4.7)	28(2.9)	72(7.6)	38(4.0)	110(5.8)
① 돈	76(2.7)	1(.4)	5(2.0)	9(4.5)	7(3.0)	22(2.3)	37(3.9)	17(1.8)	54(2.9)
② 경제력	38(1.3)	-	-	-	-	-	23(2.4)	15(1.6)	38(2.0)
③ 경제적 여유	24(.8)	-	-	2(1.0)	4(1.7)	6(.6)	12(1.3)	6(.6)	18(1.0)
7. 휴식 및 여가시간	69(2.4)	23(8.8)	17(6.6)	17(8.5)	8(3.4)	65(6.8)	2(.2)	2(.2)	4(.2)
① 자유시간	56(2.0)	18(6.9)	15(5.9)	15(7.5)	8(3.4)	56(5.9)	-	-	-
② 휴식시간	9(.3)	5(1.9)	2(.8)	2(1.0)	-	9(.9)	-	-	-
③ 여가생활	4(.1)	-	-	-	-	-	2(.2)	2(.2)	4(.2)
8. 개인적 성취	65(2.3)	14(5.4)	15(5.9)	7(3.5)	4(1.7)	40(4.2)	14(1.5)	11(1.2)	25(1.3)
① 학업성취	31(1.1)	13(5.0)	13(5.1)	5(2.5)	-	31(3.3)	-	-	-
② 사회적 성공	24(.8)	1(.4)	2(.8)	2(1.0)	4(1.7)	9(.9)	9(1.0)	6(.6)	15(.8)
③ 적성에 맞는 일함	10(.4)	-	-	-	-	-	5(.5)	5(.5)	10(.5)
9. 기타	39(1.4)	7(2.7)	9(3.5)	1(.5)	5(2.2)	22(2.3)	10(1.1)	7(.7)	17(.9)
① 없음	36(1.3)	6(2.3)	9(3.5)	1(.5)	4(1.7)	20(2.1)	10(1.1)	6(.6)	16(.8)
② 기타	3(.1)	1(.4)	-	-	1(.4)	2(.2)	-	1(.1)	1(.1)
계	2836(00)	246(100)	236(000)	206(100)	232(00)	930(00)	946(00)	940(00)	1886(100)

표 8. 전반적으로 가장 불행할 때

범주 집단	전체(%)	청소년(%)					부모(%)		
		초	중	고	대	계(%)	부	모	계(%)
1. 가정의 불화	628 (24.4)	104 (39.4)	66 (27.8)	42 (21.3)	30 (13.2)	242 (26.2)	162 (20.1)	224 (26.5)	386(23.4)
① 부모자녀 갈등	262 (10.2)	83 (31.4)	36 (15.2)	22 (11.2)	8 (3.5)	149 (16.1)	35 (4.3)	78 (9.2)	113(6.8)
② 부부싸움	140 (5.4)	9 (3.4)	11 (4.6)	5 (2.5)	4 (1.8)	29 (3.1)	47 (5.8)	64 (7.6)	111(6.7)
③ 가족간 불화	125 (4.9)	3 (1.1)	9 (3.8)	9 (4.6)	12 (5.3)	33 (3.6)	52 (6.5)	40 (4.7)	92(5.6)
④ 가족간 의견충돌	60 (2.3)	6 (2.3)	9 (3.8)	4 (2.0)	5 (2.2)	24 (2.6)	20 (2.5)	16 (1.9)	36(2.2)
⑤ 가족간 이해부족	41 (1.6)	3 (1.1)	1 (.4)	2 (1.0)	1 (.4)	7 (.8)	8 (1.0)	26 (3.1)	34(2.1)
2. 건강 문제	452 (17.5)	22 (8.3)	20 (8.4)	15 (7.6)	22 (9.7)	79 (8.5)	167 (20.7)	206 (24.4)	373(22.6)
① 가족 건강 악화	261 (10.1)	9 (3.4)	10 (4.2)	8 (4.1)	11 (4.8)	38 (4.1)	95 (11.8)	128 (15.1)	223(13.5)
② 개인 건강 악화	191 (7.4)	13 (4.9)	10 (4.2)	7 (3.6)	11 (4.8)	41 (4.4)	72 (8.9)	78 (9.2)	150(9.1)
3. 개인적 성취 어려움	282 (10.9)	44 (16.7)	33 (13.9)	39 (19.8)	48 (21.1)	164 (17.7)	71 (8.8)	47 (5.6)	118(7.1)
① 학업성취 어려움	139 (5.4)	40 (15.2)	31 (13.1)	35 (17.8)	33 (14.5)	139 (15.0)	-	-	-
② 목표 좌절	99 (3.8)	4 (1.5)	2 (.8)	4 (2.0)	15 (6.6)	25 (2.7)	48 (6.0)	26 (3.1)	74(4.5)
③ 사회적응 어려움	44 (1.7)	-	-	-	-	-	23 (2.9)	21 (2.5)	44(2.7)
4. 인간관계 어려움	261 (10.1)	37 (14.0)	52 (21.9)	37 (18.8)	41 (18.1)	167 (18.1)	48 (6.0)	46 (5.4)	94(5.7)
① 소외감 느낌	111 (4.3)	14 (5.3)	19 (8.0)	19 (9.6)	17 (7.5)	69 (7.5)	24 (3.0)	18 (2.1)	42(2.5)
② 타인과 의견충돌	62 (2.4)	7 (2.7)	7 (3.0)	5 (2.5)	6 (2.6)	25 (2.7)	18 (2.2)	19 (2.2)	37(2.2)
③ 친구와 불화	57 (2.2)	14 (5.3)	23 (9.7)	11 (5.6)	9 (4.0)	57 (6.2)	-	-	-
④ 인간관계 어려움	31 (1.2)	2 (.8)	3 (1.3)	2 (1.0)	9 (4.0)	16 (1.7)	6 (.7)	9 (1.1)	15(.9)
5. 경제적 어려움	255 (9.9)	3 (1.1)	4 (1.7)	2 (1.0)	9 (4.0)	18 (1.9)	130 (16.1)	107 (12.7)	237(14.4)
① 경제적 어려움	129 (5.0)	3 (1.1)	4 (1.7)	2 (1.0)	9 (4.0)	18 (1.9)	47 (5.8)	64 (7.6)	111(6.7)
② 사업실패	57 (2.2)	-	-	-	-	-	38 (4.7)	19 (2.2)	57(3.5)
③ 직장 잃음	43 (1.7)	-	-	-	-	-	31 (3.8)	12 (1.4)	43(2.6)
④ 수입 불안정	26 (1.0)	-	-	-	-	-	14 (1.7)	12 (1.4)	26(1.6)
6. 없음	237 (9.2)	12 (4.5)	20 (8.4)	10 (5.1)	16 (7.0)	58 (6.3)	102 (12.7)	77 (9.1)	179(10.8)
7. 정서적 불만	222 (8.6)	17 (6.4)	19 (8.0)	32 (16.2)	27 (11.9)	95 (10.3)	55 (6.8)	72 (8.5)	127(7.7)
① 불만족감	116 (4.5)	9 (3.4)	15 (6.3)	16 (8.1)	13 (5.7)	53 (5.7)	25 (3.1)	38 (4.5)	63(3.8)
② 심리적 불안	72 (2.8)	5 (1.9)	2 (.8)	13 (6.6)	11 (4.8)	31 (3.4)	18 (2.2)	23 (2.7)	41(2.5)
③ 정서적 여유 없음	34 (1.3)	3 (1.1)	2 (.8)	3 (1.5)	3 (1.3)	11 (1.2)	12 (1.5)	11 (1.3)	23(1.4)
8. 가족 사망	102 (4.0)	5 (1.9)	1 (.4)	7 (3.6)	4 (1.8)	17 (1.8)	46 (5.7)	39 (4.6)	85(5.1)
9. 여가시간 부족	66 (2.6)	13 (4.9)	16 (6.8)	6 (3.0)	9 (4.0)	44 (4.8)	11 (1.4)	11 (1.3)	22(1.3)
① 하고 싶은 것 못함	33 (1.3)	10 (3.8)	11 (4.6)	6 (3.0)	4 (1.8)	31 (3.4)	1 (.1)	1 (.1)	2(.1)
② 여가생활 제약	14 (.5)	2 (.8)	1 (.4)	-	2 (.9)	5 (.5)	5 (.6)	4 (.5)	9(.5)
③ 개인시간 부족	10 (.4)	-	2 (.8)	-	3 (1.3)	5 (.5)	-	5 (.6)	5(.3)
④ 휴식부족	9 (.3)	1 (.4)	2 (.8)	-	-	3 (.3)	5 (.6)	1 (.1)	6(.4)
10. 지난 시절	52 (2.0)	5 (1.9)	3 (1.3)	5 (2.5)	17 (7.5)	30 (3.2)	11 (1.4)	11 (1.3)	22(1.3)
① 과거	21 (.8)	1 (.4)	2 (.8)	-	5 (2.2)	8 (.9)	6 (.7)	7 (.8)	13(.8)
② 학창시절	18 (.7)	-	-	1 (.5)	8 (3.5)	9 (1.0)	5 (.6)	4 (.5)	9(.5)
③ 어린시절	13 (.5)	4 (1.5)	1 (.4)	4 (2.0)	4 (1.8)	13 (1.4)	-	-	-
11. 기타	19 (.7)	2 (.8)	3 (1.3)	2 (1.0)	4 (1.8)	11 (1.2)	3 (.4)	5 (.6)	8(.5)
① 현재	11 (.4)	1 (.4)	1 (.4)	2 (1.0)	3 (1.3)	7 (.8)	1 (.1)	3 (.4)	4(.2)
② 기타	8 (.3)	1 (.4)	2 (.8)	-	1 (.4)	4 (.4)	2 (.2)	2 (.2)	4(.2)
계	2576 (100)	264 (100)	237 (100)	197 (100)	227 (100)	925 (100)	806 (100)	845 (100)	1651(100)

IV.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에 토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세대별 학교수준별 행복, (2) 한국인 행복 토착 심리의 핵심변인으로서 가정화목, (3)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서 자기조절과 학업충실, (4) 성인 행복을 위한 요소로 건강과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 (5)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

첫째, 세대별 학교수준별 행복과 관련된 논의이다.

연령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기보다 불일치하는 결과들을 나타낸다. 연령집단별로 행복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경우도 있고(서은국 등, 2010; 전경숙, 정태연, 황병의, 2008), 연령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힌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9a; 임영진 등, 2010)도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세대집단별로 행복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청소년이 부모보다 전반적 행복수준이 더 높았는데, 하위영역별로 보면 가정생활이나 여가생활에서의 행복 모두 청소년이 더 높았다(표 3 참고). 전경숙, 정태연과 황병의(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청소년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밝혀져, 이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전경숙 등(200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집단을 초, 중, 고, 대학생으로 구성한 것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이 연구에서도 고등학생 집단의 행복 평균만 보면(표 4 참고)

부모의 행복 평균보다 낮았다(표 5 참고). 이는 초,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행복수준이 현저히 낮고, 이러한 학교수준별 행복의 차이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 집단 내에서 고등학생들의 행복수준이 낮은 것은, 대학입학시험을 앞두고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인 것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

연령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불일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관관계분석이나 집단 간의 차이검증을 하느냐,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분석과 같은 인과관계 분석을 하느냐와 같은 통계적 분석방법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외생변인을 통제하고 순수 연령효과를 검증했는지(임영진 등, 2010)도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연령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분석대상의 연령범위가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청소년과 부모세대 집단별 비교와 같이 일정 연령대의 세대집단이 표집될 수도 있다. 또는 청소년 집단 내에서 학교수준별 연령 구분이 가능하며, 성인 집단 내에서도 30대-50대와 같이 연령구분이 가능하다. 연령을 연속적인 양적 측정 변인으로 다룰 수도 있고, 질적으로 구분되는 집단으로 다룰 수도 있다. 이와같이 각 연구마다 다양한 연령 범위와 연령 분류방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 분석 결과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연령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연령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과 부모 세대집단별로 행복의 차이 및 행복에서의 토착심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행복한 정도에 있어, 두 세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정생활이나 여가생활에서 청소년들이 더욱 행복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2 참고). 학교수준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행복하고,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감소하였다.

한편 행복에서의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는, 큰 맥락에서 볼 때 세대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이 공통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의 행복과 관련된 토착심리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청소년과 부모 세대집단 간에 나타난 구체적인 차이점들은 각 세대집단이 갖는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한국인의 행복과 관련된 토착심리의 대표적 측면들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둘째, 한국인 행복 토착심리의 핵심변인으로서 가정화목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행복과 관련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는 삶의 질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결과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삶의 질 인식을 통해 본 토착심리 특징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요인, 자기조절, 교육적 성취의 측면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또한 김의철과 박영신(2006b)도 한국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여섯 가지로 논의하였는데(경제력, 원만한 인간관계, 정서적 지원, 심리적 특성으로서 통제감의 중요성: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

에 대한 기대,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들), 이 연구에서 밝혀진 행복의 토착심리와 많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인의 행복 토착심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가정화목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과 부모집단 모두, 가장 행복한 때는 가정이 화목할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5 참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부모집단 모두,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였다(표 7 참고). 또한 가장 불행한 때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집단 모두 가정이 불화할 때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표 8 참고). 따라서 한국인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요소로 화목한 가정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전경숙, 정태연, 2009), 부모의 사회적 지원(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박영신, 김의철, 2008a)과 화목한 가정이 행복이나 생활만족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이와같이 행복의 핵심요소로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생활목표의식으로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가정의 화목을 중요시 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귀영화, 자아실현, 사회봉사와 같은 다양한 생활목표의식 중에서, 한국 청소년과 성인 세대집단은 모두, 가정화목에 대한 가치인식이 현저하게 높았다(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뿐만 아니라 노인 집단에서도 가정화목이 가장 중요한 생활목표로 인식되고 있었다(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

식, 2000).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모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성장할 때가 가정화목 다음으로 행복하였다(표 5 참고). 이러한 결과도 한국 성인들의 행복이 자녀와의 관계 중심이고, 이를 통한 화목한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개인과 관련된 행복한 상황보다는 가족 특히 자녀가 잘 되는 것과 관련된 행복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부모들의 태도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개념(김의철, 박영신, 2006a; Kim, 2004)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셋째,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서 자기조절과 학업충실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한국인 행복 토착심리의 핵심 변인으로서 가정화목이 부각된 이외에, 청소년과 성인 세대집단 각각이 갖는 특징들 중에,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 범주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청소년들은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써 자기조절과 학업충실을 대표적으로 지적하였다(표 6 참고).

행복하기 위해 자기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은 자기효능감이 행복과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조절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은, 다른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시사된다(한지숙, 2011). 특별히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이 체계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9)에서 밝혀져 왔다. 청소년(박영신, 김의철, 박영균, 2010)만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

한국 청소년들 경우에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 연구에서의 질적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행복에 학업성취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9b).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도 작용하였다(김오남, 2004). 한국 청소년들은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의 방법이라고 인식(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 Park, 2008)하고 있고, 학업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촉진시키고, 높은 학업성취의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넷째, 성인 행복을 위한 요소로 건강과 경제적 안정의 영향력에 관련된 논의이다.

이 연구에서 성인 부모 집단에서 행복을 위한 요소로 가정의 화목 외에,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대표적으로 부각되었다. 예컨대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서 부모 집단이 화목한 가정과 건강관리를 대표적으로 지적하였으며(표 6 참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모 집단은 건강과 자기조절을(표 7 참고), 가장 불행할 때로서 부모 집단은 가정이 불화할 때를,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표 8 참고)인

것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성인에게 가정의 화목 다음으로 중요한 행복의 요소들이 건강과 경제적 안정임을 보여준다.

이와같이 성인의 행복에 있어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한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에서도 경제적 요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6). 그리고 높은 소득수준은 행복한 사람의 특성(서은국 등, 2010)에 포함되었고, 정신적 웰빙(임영진 등, 2010)의 수치를 상승시켰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경제적 성공이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전경숙, 정태연, 황병의, 2008).

물론 월평균수입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나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 자녀성공과 같은 다른 변인들보다 행복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9a).

다섯째, 이 연구의 결과에 토대한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밝혀진 행복의 토착심리와 관련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질적이고 양적인 분석들을 보다 심도있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질적 분석을 위한 하위집단 분류를 위해, 이 연구에서 청소년 집단은 학교수준별로, 부모 집단은 성별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하위집단 분류 기준을 달리하여 자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집단은 학업성취 상중하 집단으로, 부모 집단은 직업성취 상중하 집단으로 또는 자녀의 학업성취 상중하 집단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및 그들의 남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들은(박영신, 김의철, 2011), 성별에서도 좀 더 정교한 집단구분이 필요해짐을 시사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취업주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업주부와는 심리특성에서 차이가 있고, 또 이들은 남편집단과도 행복에 대한 시각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성인의 성별 행복의 차이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집단구분이나 정교한 연구설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양적인 분석을 진행할 때, 청소년 집단 경우에, 학업성취 등의 변인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행복이 일관된 연속성을 어느 정도 갖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 집단 경우에, 직업성취나 또는 자녀의 학업성취 등의 변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및, 행복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면, 의미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청소년과 성인이 지각하는 행복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 연구에서의 분석은, 삶의 질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개념범주들이(김의철, 박영신, 2006b) 찾아졌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성취, 부모자녀관계, 신뢰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결과에서와 공통되는 심리적 구인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가정의 화목, 자기조절, 인간관계, 학업충실의 중요성 등은 행복과 무관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도 중요하게 밝혀진 구인들이다. 서양 중심의 일반심리학적 전통의 확산과정에서 보편성만 강조되

고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토착적인 측면에 대해 소홀 한다면, 정신세계의 소중한 단면을 상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Kim, Yang과 Hwang (2006)은 문화와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가 미래 과학적 심리학의 나아갈 방향임을 지적한 바 있다. 문화적 보편성(etic)과 문화적 특수성(emic)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 외연의 확대는, 한국인 심리에 대한 이해라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자료의 정리와 누적을 통해 토착심리학의 발전 및 미래 심리학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를 함축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 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오남 (2004).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1(3), 43-62.
- 김의철, 박영신 (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성인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 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의철, 박영신 (2006a).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4), 1-36.
- 김의철, 박영신 (2006b).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28.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견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 김정민, 유안진 (2005).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4), 159-176.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08a).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김의철 (2008b).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박영신, 김의철 (2009a).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95-132.
- 박영신, 김의철 (2009b).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영신, 김의철 (2009c).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67-495.
- 박영신, 김의철 (2011).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65-108.
- 박영신, 김의철, 김경자 (2010). 한국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성공의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성공 경험, 사회적 지원, 성공 원인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4(3), 785-829.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김미숙 (2012).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세대의 자녀가치 비교 분석: 자녀 수, 성별 선호도,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과 어려운 점, 노후부양 기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1), 특집호, 127-152.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박영균 (2010). 세대 차이와 갈등은 삶의 질을 낮추는가?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33-559.
- 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2009). 사회적 지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 교사에 대한 단기 종단분석. 교육심리연구, 23(3), 491-520.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 자녀효도 관련 토착심리 탐구와 자녀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 중, 고, 대학생 부모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4), 87-120.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9). 부모가 지각한 자녀 효도의 구성개념 및 영향: 자녀양육 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와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6(3), 203-241.
- 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한기혜 (2011).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 지역, 부모의 기대, 부모와 갈등,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3), 5-41.
- 박영신, 안귀옥 (2012). 부부갈등, 부모역할, 자기효능감이 기혼남녀의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65-90.

-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13-232.
- 유슬기, 방희정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부모 관련 스트레스 및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2), 169-185.
- 이종환, 박은아 (2010). 내외적 자기개념, 행복 조건, 사회비교와 자기존중감의 관계: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4), 423-445.
-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0). 한국인의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33-257.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133-153.
- 전경숙, 정태연, 황병의 (2008).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 간 행복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08-209.
- 한지숙 (2011).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 탐색. *인간발달연구*, 18(3), 1-1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Keyes, C. L. M. (2005). Mental illness and/or mental health? Investigating axioms of the complete state model of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73, 539-548.
- Keyes, C. L. M. (2008). Evaluat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MHC-SF) in Setswana-Speaking South African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5, 181-192.
- Kim, U. (2004). Relational concept of sel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behavior. Keynote address,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July 31. Honolulu.
- Kim, U., Yang, K. S., & Hwang, K. K. (Eds.)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24-48. New York: Springer.
- Park, Y. S. (2008).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 Korea.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168.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1 차원고접수 : 2012. 4. 9

수정원고접수 : 2012. 5. 2

최종게재결정 : 2012. 5. 31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Ui-chol Kim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Young-Shin Park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Sun-Young Baak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using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 total of 2,955 respondents, consisting of 985 adolesc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269, middle school student=270, high school student=211, and university student=235), and 1,970 parents (father=985, mother=985) completed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first two research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reported being most happy when there were harmony in the family, followed by when they were engaged in leisure activities, when they had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when they were successful in achieving their personal goals. As for parents, they reported being most happy after giving birth to their children and seeing them grow, followed by when they are healthy. Second, as for the question of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both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reported that they needed to self-regulate. This was followed by studying hard and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for adolescents and maintaining harmonious family and health for parents. Third, as for the basis of happiness, both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reported that they needed to maintain harmonious family. This was followed by self-regulation, emotional security, and good relationships for adolescents and health and self-regulation for parents. Fourth, both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reported that they were most unhappy when there was conflict in the family. This was followed by problems in relationships and failing to achieve their personal goals for adolescents and having health and financial problems for paren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armony in the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s, followed by self-regulation and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In addition, adolescents needed to do well academically and adults needed to maintain good health and finances.

Key words : Happiness, unhappiness, basis of happiness, indigenous psychology, harmonious family, self-regul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ing studious, health, financial security